

“과도한 학교법인 재량권 ‘알될일’”

전교조 전북, “도교육청, 사립학교 실질적 관리·감독 나서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량권 확대를 중단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인 만큼 학교법인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이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교원의 채용과 인사에 관한 상당한 권한은 학교법인이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1차 필기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지만 수업실연과 면접 등 2·3차 전형과 최종 선발은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전교조는 1차 시험의 객관성만으로는 전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선발예정 인원 대비 최종합격 비율은 2022학년도 법인가공등전원 98.4%, 2023학년도 공립위탁 94.2%에서 2024학년도 78.3%, 2025학년도 64.8%, 2026학년도 62.3%로 낮아졌다.

지원자 미달이나 1차 시험 과락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학교법인에서는 복수의 1차 합격자가 있었음에도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한 법인의 보건 과목의 경우 1명 모집에 5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최종합격자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북교육청이 ‘적격자 없음’ 등 최종 미선발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선발예정 인원을 채우지 않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그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량권 확대를 중단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발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운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이 당초 2027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서 1차 합격자를 최대 5배수에서 3배수 이내로 축소하러 했다가 사립학교법인의 반발 이후 다시 최대 5배수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2·3차 전형을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상황에서 1차 합격자를 최대 5배수까지 허용하면 객관적인 1차 시험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당초 제시한 3배수 이내 선발 방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업실연 등 2차 전형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위탁채용을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발예정 인원을 채우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등 주요 인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가 일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구성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 A학교의 부당전보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 교원에게 전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학교장의 적법한 제정 없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취소했지만,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이 교원인사위원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완주 B학교 사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2차 가해를 인정한 관리자에 대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교원은 부당징계를 받고 감리를 회복하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징계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과정에서 전북교육청 역시 학교법인이 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이행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와 학교법인의 관계기관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남원 C학교에서 특정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해임이 반복됐으며, 해당 교원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두 차례 학교에 복귀했음에도 학교법인이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이 반복적으로 취소됐는데도 동일 교원에 대한 징계가 계속된다면 이를 단순한 인사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취소된 경우 교육청이 징계 원인과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동일 법원에서 징계 취소가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북교육청 특별감사단 내 사립학교 전담부서 신설 △현직 사립학교 교사의 임기제 장학생 파견 △사립학교 교원 채용 1차 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최종 미선발 사례 전수조사 △2차 전형 위탁 법인 인센티브 제공 △교원인사위원회 상시 점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부당징계 반복 학교법인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이라며 “학교법인에 자율성을 보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묻고,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19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금융 및 농생명, 미래 첨단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대거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주요 공공기관 전북으로”

양오봉 전북대 총장 “글로벌 인재 양성 동력 금융·농생명·미래 첨단산업 인프라 탄탄”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19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금융 및 농생명, 미래 첨단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대거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총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글로벌 인재 양성의 동력이라며 전북은 이미 금융·농생명·미래 첨단산업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전북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180만 전북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일하는 구조가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지역은 국민연금 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도시 기반,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새만금 미래산업과 첨단제조 역량 등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장점이 획기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내달부터 ‘책바다’ 우편비 전액 지원

전북교육청, 이용자 부담 2770원 없애 독서·정보격차 해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국가상호대차 서비스인 ‘책바다’ 이용자의 우편비 부담을 전액 지원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9월 1일부터 소속 학생교육문화관과 도서관 이용자가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왕복 우편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책바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다.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협력망에 가입한 전국 1,380여 개 도서관의 자료를 신청해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소속 학생교육문화관과 도서관 18개관 이용자에게 왕복 우편비 5,800원 가운데 3,030원을 지원해왔다. 이용자는 나머지 2,770원

을 부담해야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용자 부담금이 서비스 이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우편비 지원 비율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전북교육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독서교육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독서·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전북교육청 소속 학생교육문화관과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책바다’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오직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어느 지역에 살든 읽고 싶은 책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생활에 밀착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자료 접근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9월 1일자 교원 등에 임명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9월 1일자 유·초등 신규교사와 유·초·중등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9일 청조나래 시청각실과 강당에서 9월 1일자 인사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 청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유·초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유치원 교사 20명과 초등학교 교사 36명 등 모두 56명이 임명장을 받고 교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천호성 교육감은 신규교사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전북 교육가족이 된 것을 축하했다.

천 교육감은 “교사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을 교육감이자 교직 선배로서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향해 도전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층 강당에서는 본청 교육국장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장 12명을 비롯해 유·초·중등교(원)장 58명, 교(원)감 65명, 교육전문직원 61명 등 모두 184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천 교육감은 임명장 수여 후 새로운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교(원)장과 교(원)감, 교육전문직원들에게 전북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전북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전북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청조나래 시청각실과 강당에서 9월 1일자 인사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전과 모험, 살아가는 힘’ | 전북교육청, 2026 교육가족 공모전 동시·포토시·숏폼 영상·만화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26 교육가족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전북교육에 대한 교육가족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도전과 모험, 살아가는 힘’이다. 공모 분야는 △동시 △포토시(詩) △숏폼 영상 △만화(웹툰) 등 4개 분야다.

출품작은 주제에 맞춰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독서·진로·운동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경험을 비롯해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며 성장한 이야기, 행복한 수업과 교실에서의 배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서로 존

중하고 함께하는 학교생활, 농촌이나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한 경험 등이 주요 소재가 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분야별로 다르다. 동시는 도내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포토시와 숏폼 영상, 만화(웹툰)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포토시와 숏폼 영상에는 교직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숏폼 영상은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동시는 학생을 대신해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숏폼 영상은 개인 또는 5명 이하의 단체로 출품할 수 있다.

모든 분야는 1인 또는 1팀당 분야별 1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2일 오후 5시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

행된다. 출품작과 함께 작품 설명도 제출해야 하며, 작품 설명은 파워쓰기를 제외하고 30자 이상 작성해야 한다. 전년도 대상 수상자는 이번 공모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분야별 대상 4편, 최우수상 9편, 우수상 19편, 장려상 42편 등 모두 7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 결과는 오는 11월 13일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과 상품권이 수여된다.

출품 규격과 분야별 참가 자격,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3-299-3153)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준철 장학관은 “교육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장애학생 직업교육·봉사 상생협력

덕유샘학교-PICK사회연대

덕유샘학교와 PICK 사회연대가 장애학생의 직업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

덕유샘학교(교장 김선옥)와 PICK 사회연대(대표 이주환)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과 지역사회 봉사를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수군 계북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 봉사와 건강 케어 무료급식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학생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실무능력을 키우고, 현장실습과 직무교육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세탁과 건강관리, 급식 등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양 기관은 봉사활동과 직업교육을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향후 졸업생과 졸업예정자의 취업 연계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주환 PICK 사회연대 대표는 앞서 지난 5월 덕유샘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해당 기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활용됐다. /오상근 기자